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선정 책의 분석

An Analysis of Books Selected in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in the U.S.A.

윤 정 옥(Cheong-Ok Yoon)*

〈 목 차 〉

I. 머리말	III. ‘한 책, 한 도시’ 선정 책의 분석
1. 연구의 배경	1. 선정된 책의 분석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2개 이상 프로그램 선정 책의 분석
II. 선행연구	IV. 맺음말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책들의 선호도, 분류기호, 주제표목, 발행연도, 장르 등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지향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2010년 6월까지 미국의회도서관(LC) 도서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지역별 및 작가별 리스트를 기반으로 2개 이상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 210종의 LC OPAC 서지레코드를 분석하였다.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 많이 선정된 책은 미국이라는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의 삶을 그린 전기적 성격의 교양소설이나 가정소설 형식의 비교적 최근 간행된 미국문학작품으로 나타났다. 독서와 토론을 통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화합 달성이라는 생각이 ‘한 책’ 독서운동의 일관적인 지향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미국공공도서관, 지역사회 운동, 다문화사회 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One Book, One City' community reading campaign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elected books, including their classification numbers, subject headings, publication dates, and genres. An analysis of list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s Projects' available from the website of the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s, and bibliographic records of 210 books from LC OPAC, shows the preference for the recently published American literatures in the genre of Bildungsromane and domestic fiction which describe the life of people with multi-cultural or ethnic backgrounds. It is confirmed that 'One Book, One City' community reading campaign has been consistently oriented to achieve the understanding and integration of a community by reading and discussion of one book.

Keywords: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Public Libraries in the U.S., Community Movement, Integration of Mucultural Society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 접수일: 2012년 8월 28일 •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13일 • 최종심사일: 2012년 12월 26일

I.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지난 1998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하 “한 책 독서운동”이라 부름)은 미국의 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대표적인 모형이 되었다. ‘한 책’ 독서운동은 하나의 지역사회가 일정 기간 동안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며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형적 방식을 가진다. 이 ‘한 책’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모형은 2006년부터는 미국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 진행하는 ‘The Big Read’ 독서운동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미국의회도서관 도서센터 웹사이트의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진행된 ‘한 책’ 독서운동의 리스트¹⁾를 볼 수 있으며, 각각 읽은 책의 리스트²⁾도 등록되어 있다. 1998년 시애틀의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 최초로 등록된 이래, 이 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 2011년 1월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모두 574개 등록되어 있다. 실제로 웹사이트에는 그보다 많은 588개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 등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실시연도 혹은 읽은 책을 등록하지 않은 14개는 실제 시행 여부 자체가 확실하지 않았다.

여기 등록된 574개 ‘한 책’ 독서운동들의 일부는 지금은 중단되었고, 상당수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이 199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등록한 ‘한 책’ 프로그램 수는 모두 1,710개에 이른다. 모든 지역사회들이 자신이 진행하는 ‘한 책’ 프로그램의 정보를 즉각 갱신하여 등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2010년이나 2011년 현재 진행 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단 등록된 프로그램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연구자가 사용한 ‘한 책’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한 책’ 독서운동을 진행하는 지역사회에서 한 번에 시행되는 사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라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2002년 가을부터 매년 2회씩 진행되므로 매년 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One Book, One Chicago’는 2011년 가을까지 모두 1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연구는 ‘한 책’ 독서운동에서 어떤 책을 읽는가에 주목하였다. ‘한 책’ 독서운동의 1,710개 프

1)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 [cited 2012. 8. 2].

2)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Selected List by Author,”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authorlist.php>〉 [cited 2012. 8. 2].

로그램에서 지금까지 선정된 책은 모두 662종에 이른다. 그 가운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어 읽힌 책은 217종이며, 단 한 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은 445종으로 전체의 삼분의 이 정도이다. 각각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한 권의 책은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기 위한 구심점이 된다. 읽을 책을 선정하는 데는 '한 책' 독서운동이 단순히 독서 분위기를 진흥하고자 하는 것인지,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지 등과 같이 목표가 영향을 미치며,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지,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아예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같이 대상 독자층도 영향을 미친다.³⁾ 그밖에도 지역작가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겠다든지, 특정한 주제의 책을 읽겠다든지, 혹은 'The Big Read'처럼 고전작품을 읽겠다든지 하는 다양한 접근방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특정한 '한 책' 독서운동에서,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된 복합적 요인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한 책' 독서운동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책을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선정하여 읽었는가를 일일이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한 책'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책들의 특성과 누적된 양상을 보면, '한 책' 독서운동 자체가 지향하는 집합적인 목표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진행된 '한 책'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책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살펴봄으로써 '한 책' 독서운동 자체가 지향하는 집합적인 목표와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선정된 책들의 선호도, 주제, 발행연도, 장르 등의 특성이 누적되고 수렴됨으로써 나타나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지향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2010년 6월 현재 미국의회도서관 도서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각 프로그램 선정 책 리스트를 중심으로 우선 전체 662종의 책들 가운데 어떤 책들이 선호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들 가운데 2개 이상의 '한 책, 한 도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 217종을 대상으로 미국의회도서관 목록에서 서지레코드를 검색하고, 각 서지레코드에 수록된 미국의회도서관 분류기호, 미국의회도서관 주제표목(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및 장르 표목 등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주제 및 장르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항목들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3. "One Book, One Community: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 <http://www.ala.org/ala/orc/onebookguide.pdf> [cited 2007. 1. 18].

것으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방대한 규모의 책들을 직접 내용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각 책의 서지레코드에서 내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서지요소들을 추출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

II. 선행연구

윤정옥은 2005년 ‘한 책’ 독서운동의 성장과 확산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개혁적, 지속적 및 집합적 독서운동으로서의 의의를 평가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자는 ‘한 책’ 선정 작가 및 도서의 주제, 장르, 발행연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지역사회가 함께 한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이해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적, 사회적, 공동체적 목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회도서관 목록에서 조사한 ‘한 책’ 선정도서의 서지레코드를 분석한 결과로서 1990년대 이후 간행도서에 대한 선호, 전기 및 전기적 소설의 중요성,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이해라는 주제의 집중성 등의 특성을 발견하였다.⁴⁾

본 연구는 상기 연구에서 아직은 초기단계였던 2005년 당시까지 ‘한 책’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책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던 결과를 참조하였다. 2010년 시점에서 ‘한 책’ 독서운동이 더욱 안정된 형태로 진행되고, 누적된 책들의 규모가 확대된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항목의 분석을 수행하는 동시에, 선호된 책, 주제 및 장르 등 일부 항목을 비교하였다.

한편 윤정옥은 다른 연구에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과정에서 목표의 설정, 책의 선정, 독서와 토론 및 프로그램이라는 네 가지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시애틀, 시카고와 ‘The Big Read’, 우리나라의 서울, 청주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들이 읽을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학고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작성된 책의 독서 및 토론지침과 프로그램들이 문화적 콘텐츠로서 가치가 생겨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⁵⁾

이용재는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통한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의 ‘한 책’ 운동의 의미와 현황을 조망한 뒤,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서 독서운동의 활성화,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모델 정립의 측면을 검토하였다.⁶⁾ 윤정옥은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한 ‘The Big Read’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The Big Read’는 미국의 국립예술지원기금이 지원하는 전국 단위 지역사회 독서운동으로서

4) 윤정옥,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5. 9), pp.27-44.

5)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p.5-32.

6) 이용재,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9), pp.5-23.

2006년 시범사업 이래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연방정부 기금 및 다양한 재단, 기관,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확보한 막대한 재정 투입, 도서관을 독서운동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인정, 고급의 표준적 독서 활동 자원 제공 등을 강점으로 들었다.⁷⁾

윤정옥은 또한 2006년 청주에서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인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통해 개별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대중독서운동의 실천 및 운영방식에 따른 성과와 특성을 분석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⁸⁾ 이용재는 우리나라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현단계를 점검하고 이 운동이 정착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북 원부산' 독서운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원북 원부산' 독서운동의 지속적 진행에 따른 인지도 증가, 공공도서관의 위상 홍보 등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기획도서선정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한계점을 지적하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발전전략을 제안하였다.⁹⁾

Ⅲ. '한 책, 한 도시' 선정 책의 분석

1. 선정된 책의 분석

1.1 선정된 책의 전체적 분포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을 시행한 지역사회의 1,710개 프로그램에서 2010년 6월 현재까지 선정되어 읽힌 책은 모두 662종이다.¹⁰⁾ 그 가운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어 읽힌 책은 217종이며(32.8%), 단 한 개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은 445종으로(67.2%), 선정된 책의 전체적인 분포 양상은 <표 1>에 보는 바와 같다.

7) 윤정옥, "미국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The Big Read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6), pp.311-333.
 8)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08. 3), pp. 63-81.
 9) 이용재,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전략: '원북 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247-265.
 10) Library of Congress, The Book Center,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Selected List by Author," <<http://read.gov/resources/authorlist.php>> [cited 2010. 6. 11].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4호)

〈표 1〉 ‘한 책’ 선정 작품 (2010년 6월 현재)

순위	서명	발행연도	저자명	프로그램	종수
1	<i>To Kill a Mockingbird</i>	1960	Harper Lee	78	1
2	<i>Kite Runner</i>	2003	Khaled Hosseini	59	1
3	<i>Fahrenheit 451</i>	1953	Ray Bradbury	52	1
4	<i>Rocket Boys (October Sky)</i>	1998	Homer Hickam	31	1
5	<i>A Lesson Before Dying</i>	1993	Ernest J. Gaines	25	1
6	<i>Tuesdays with Morrie</i>	1997	Mitch Albom	21	1
7	<i>Nickel and Dimed: On (Not) Getting By in America</i>	2001	Barbara Ehrenreich	20	2
	<i>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i>	2003	Mark Haddon		
8	<i>Mountains Beyond Mountains</i>	2003	Tracy Kidder	19	1
9	<i>Walk in the Woods</i>	1998	Bill Bryson	18	4
	<i>The Great Gatsby</i>	1925	F. Scott Fitzgerald		
	<i>Pay It Forward</i>	1999	Catherine Ryan Hyde		
	<i>When the Emperor was Divine</i>	2002	Julie Otsuka		
10	<i>Color of Water</i>	1996	James McBride	17	1
11	<i>My Sister's Keeper</i>	2004	Jodi Picoult	15	3
	<i>Peace Like a River</i>	2001	Leif Enger		
	<i>The Giver</i>	1993	Lois Lowry		
12	<i>Marley and Me: Life and Love with the World's Worst Dog</i>	2005	John Grogan	14	3
	<i>Plainsong</i>	1999	Kent Haruf		
	<i>Things They Carried</i>	1990	Tim O'Brien		
13	<i>Tortilla Curtain</i>	1995	T. C. Boyle	13	1
14	<i>Water for Elephants</i>	2006	Sara Gruen	12	2
	<i>Three Cups of Tea: One Man's Mission to Promote Peace...</i>	2006	Greg Mortenson		
15	<i>Watsons Go To Birmingham - 1963</i>	1995	Christopher Paul Curtis	11	2
	<i>Glass Castle</i>	2005	Jeannette Walls		
16	<i>House on Mango Street</i>	1983	Sandra Cisneros	10	7
	<i>Snow in August</i>	1997	Pete Hamill		
	<i>Their Eyes Were Watching God</i>	1937	Zora Neale Hurston		
	<i>Namesake</i>	2003	Jhumpa Lahiri		
	<i>Life of Pi</i>	2001	Yann Martel		
	<i>The Grapes of Wrath</i>	1939	John Steinbeck		
17	<i>Bless Me, Ultima</i> 등	1972	Rudolfo Anaya	9	5
18	<i>All Over But the Shoutin'</i> 등	1997	Rick Bragg	8	4
18	<i>Because of Winn-Dixie</i> 등	2000	Kate DiCamillo	7	9
19	<i>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i> 등	2003	Mitch Albom	6	8
20	<i>Zorro</i> 등	2005	Isabel Allende	5	18
21	<i>Orchard: A Memoir</i> 등	1995	Adele Crockett Robertson	4	26
22	<i>Mayflower: A Story of Courage, Community, and War</i> 등	2006	Nathaniel Philbrick	3	23
23	<i>Cadillac Desert</i> 등	1986	Marc Reisner	2	92
24	<i>As Long As It Takes</i> 등	2006	William Pinkney	1	445
	합계				662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서 '한 책'으로 선정된 작품은 Harper Lee의 *To Kill a Mockingbird*로서 모두 78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Khalid Hosseini의 2003년 베스트셀러 소설 *Kite Runner*가 59개 프로그램, Ray Bradbury의 1953년 소설 *Fahrenheit 451*이 52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Homer Hickam의 1998년 소설 *Rocket Boys(October Sky)*는 32개 프로그램, Ernest J. Gaines의 1993년 소설 *A Lesson Before Dying*은 25개 프로그램, Mitch Albom의 *Tuesdays with Morrie*는 21개 프로그램에서 각각 '한 책'으로 선정되었다.

Barbara Ehrenreich의 *Nickel and Dimed*와 Mark Haddon의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은 각각 20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어 읽혔다. Tracy Kidder의 *Mountains Beyond Mountains*는 19개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Bill Bryson의 *Walk in the Woods*, F. Scott Fitzgerald의 *The Great Gatsby*, Catherine Ryan Hyde의 *Pay It Forward*, Julie Otska의 *When the Emperor was Divine*을 포함한 4종의 책은 18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그밖에 James McBride의 *Color of Water*(17개 프로그램), Jodi Picoult의 *My Sister's Keeper*, Leif Enger의 *Peace Like a River*, Lois Lowry의 *The Giver*(15개 프로그램), John Grogan의 *Marley and Me*, Kent Haruf의 *Plainsong*, Tim O'Brien의 *Things They Carried*(14개 프로그램), T.C. Boyle의 *Totilla Curtain*(13개 프로그램), Sara Gruen의 *Water for Elephants*와 Greg Mortenson의 *Three Cups of Tea*(12개 프로그램), Christopher Paul Curtis의 *Watsons Go To Birmingham-1963*와 Jeannette Walls의 *Glass Castle*(11개 프로그램), Sandra Cisneros의 *House on Mango Street*, Pete Hamill의 *Snow in August*, Zora Neale Hurston의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Jhumpa Lahiri의 *Namesake*, Yann Martel의 *Life of Pi*, John Steinbeck의 *The Grapes of Wrath*, Amy Tan의 *Joy Luck Club*(10개 프로그램) 등 모두 32종의 책이 10개 이상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10개 미만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 가운데, Rudolfo Anaya의 *Bless Me, Ultima* 등 5종은 9개 프로그램에서, Rick Bragg의 *All Over But the Shoutin'* 등 4종은 8개 프로그램, Kate DiCamillo의 *Because of Winn-Dixie* 등 9종은 7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또한 Mitch Albom의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 등 8종은 6개 프로그램, Isabel Allende의 *Zorro*를 포함한 18종의 책은 5개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Adele Crockett Robertson의 *Orchard: A Memoir* 등 26종의 책은 4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각각 선정되어 읽혔다.

그밖에 Nathaniel Philbrick의 *Mayflower: A Story of Courage, Community, and War* 등 23종의 책은 3개 프로그램, Marc Reisner의 *Cadillac Desert* 등 92종의 책은 2개 프로그램, William Pinkney의 *As Long As It Takes* 등 445종의 책은 각각 1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만 선정되었다.

1.2 상위 10위권 책의 분석

〈표 2〉 선호된 책 상위 10위의 비교: 2005년과 2010년

순위	서명 (2005년)	프로그램	서명 (2010년)	프로그램
1	<i>To Kill a Mockingbird</i>	26	<i>To Kill a Mockingbird</i>	78
2	<i>Fahrenheit 451</i>	23	<i>Kite Runner</i>	59
3	<i>A Lesson Before Dying</i>	21	<i>Fahrenheit 451</i>	52
4	<i>Tuesdays with Morrie</i>	19	<i>Rocket Boys</i>	31
5	<i>Rocket Boys (October Sky)</i>	18	<i>A Lesson Before Dying</i>	25
6	<i>Peace Like a River</i>	12	<i>Tuesdays with Morrie</i>	21
7	<i>Plainsong</i>	11	<i>Nickel and Dime</i>	20
	<i>The Color of Water</i>		<i>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i>	
8	<i>Kite Runner</i>	9	<i>Mountains Beyond Mountains</i>	19
9	<i>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i>	8	<i>Walk in the Woods</i>	18
			<i>The Great Gatsby</i>	
			<i>Pay It Forward</i>	
	<i>Nickel and Dime: On (Not) Getting By in America</i>		<i>When the Emperor was Divine</i>	
10	<i>Pay It Forward</i>	7	<i>The Color of Water</i>	17
	<i>The Giver</i>			
	<i>All Over but the Shoutin'</i>			
	<i>A Long Way from Chicago</i>			
	<i>Mrs. Frisby and the Rats of NIMH</i>			

〈표 2〉는 윤정옥의 이전 연구에서 2005년 당시 ‘한 책’ 프로그램에서 많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던 책들¹¹⁾과 2010년 현재까지 많이 선정된 상위 10위까지의 책들을 비교하고 보여주고 있다. 2005년에는 10위까지 모두 16종의 책이 포함되어 있고, 2010년에는 모두 14종의 책이 포함되어 있다. 〈표 2〉에서는 2005년과 2010년 두 번 다 10위권에 포함된 책들을 진하게 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 책’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많은 책들 가운데 계속해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우리나라에는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To Kill a Mockingbird*이다. 이 책은 ‘한 책’ 독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에서 2002년 맨 처음 읽은 책이다. 이 책은 2005년 당시까지 26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으나, 2010년 현재까지 모두 78개 프로그램에서 읽을거리로 선정되어 꾸준히 읽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책은 2006년 출범한 전국 단위의 지역사회 고전문학 독서운동 ‘The Big Read’ 시범사업 첫 해부터 지정도서로 선정되어 이후로도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읽히고 있다.

2005년에는 2위에 오른 책은 23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Fahrenheit 451*이었으나, 2010년에는 *Kite Runner*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2005년 9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던 *Kite Runner*는 2010

11) 윤정옥, 전계 논문, p.34.

년까지 59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Fahrenheit 451*은 52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Fahrenheit 451*은 'The Big Read'의 추천도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Kite Runner*가 일반적인 지역사회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더 많이 자발적으로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당시 상위 5종의 책들은 약간의 자리바꿈이 있었으나 2010년에도 모두 상위에 올라 있다. 2005년 당시 8위였던 *Kite Runner*가 2위로 올라섬에 따라 *Tuesdays with Morrie*가 2010년에는 6위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A Lesson Before Dying*, *Rocket Boys*와 더불어 상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2000년대 이전에 발행된 책들이다.

한편 2005년에 선호된 책 상위 10위권에 있던 *Peace Like a River*, *Plainsong*, *The Giver*, *All Over but the Shoutin'*, *A Long Way from Chicago*, *Mrs. Frisby and the Rats of NIMH* 등은 2010년에는 다소 순위가 내려갔으나, <표 1>을 보면 여전히 여러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어 읽히고 있다.

또한 2010년에 *Mountains Beyond Mountains*, *Walk in the Woods*, *When the Emperor was Divine*, *The Great Gatsby*가 새로 상위 10위권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The Great Gatsby*는 'The Big Read'의 지정도서가 되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이 책을 선정하는 '한 책' 프로그램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2개 이상 프로그램 선정 책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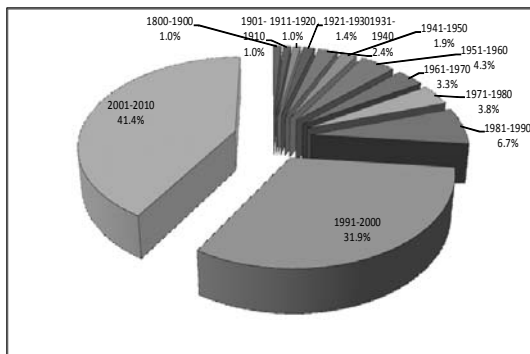
2.1 발행연도별 분석

여기에서는 2개 이상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던 책 210종의 발행연도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210종은 2개 이상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217종의 책 가운데 *The Works of Ernest J. Gaines*, *The Works of Jacquelyn Mitchard*, *The Works of Gary Paulsen*과 같이 미 국회의도서관 목록에서 발행연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개별 책이 아닌 작가 단위로 선정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 7종을 제외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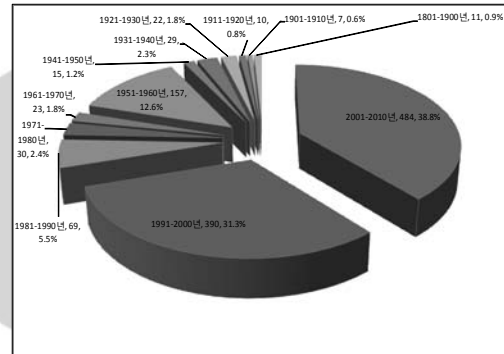
다음 <표 3>에 보는 바와 같이 210종의 책은 모두 1,247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표 3>은 이 책들의 발행연도를 1800-1900년, 1901-1950년, 1951-1960년, 1961-1970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및 2001-2010년의 여덟개 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에 발행된 책의 종수 및 이 책들을 선정한 프로그램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림 1>과 <그림 2>는 이 책들을 1901-1950년 구간도 10년 단위로 세분하여 각각 해당 구간 발행 책의 종수 및 프로그램 수를 보여주도록 구성하였다.

〈표 3〉 선정된 책들의 발행연도별 분표 (N=210)

기간	종수	비율	프로그램수	비율
1800-1900년	2	1.0%	11	0.9%
1901-1950년	16	7.7%	83	6.7%
1951-1960년	9	4.3%	157	12.6%
1961-1970년	7	3.3%	23	1.8%
1971-1980년	8	3.8%	30	2.4%
1981-1990년	14	6.7%	69	5.5%
1991-2000년	67	31.9%	390	31.3%
2001-2010년	87	41.4%	484	38.8%
합계	210종	100.0%	1,247개	100.0%



〈그림 1〉 선정된 책들의 발행연도별 분포 (N=210)



〈그림 2〉 선정된 책들의 프로그램별 분포 (N=1,247)

이 책들을 발행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비교적 최근에 간행된 책들이 읽을거리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0종의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87종(41.4%)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행되었고, 1991년부터 2000년 사이 발행된 책은 *A Lesson Before Dying*(1993년) 등 67종(31.9%)이었다. 따라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최근 이십년 내 발행된 책들이 전체의 7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900년 이전에 발행된 책은 Jane Austin의 *Pride and Prejudice* (1813년)와 Mark Twain의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1884년)의 단 2종(1.0%)이다. 1901년부터 1950년대 사이에 발행된 책은 모두 16종(7.7%)으로 1920년대 이전에 발행된 책은 L. Frank Baum의 *Wonderful Wizard of Oz*(1903년), Robert Louis Stevenson의 *Treasure Island*(1910년), Willa Cather의 *O Pioneers!* (1913년)와 *My Antonia*(1918년)를 포함하는 4종(2.0%)이다. 1920년대

발행된 책은 *The Great Gatsby*(1925년) 등 3종(1.4%), 1930년대 책은 *Their Eyes Were Watching God*(1937년) 등 5종(2.4%), 1940년대 발행된 책은 C. S. Lewis의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1950년) 등 4종(2.0%), 1950년대 책은 E.B. White의 *Charlotte's Web*(1952년) 등 9종(4.3%)이다.

1960년대 발행된 책은 Truman Capote의 *In Cold Blood*(1966년) 등 7종(3.3%), 1970년대 발행된 책은 Rudolfo Anaya의 *Bless Me, Ultima*(1972년) 등 8종(3.8%), 1980년대 발행된 책은 Amy Tan의 *Joy Luck Club*(1989년) 등 14종(6.7%)이다.

전체 책의 종수로만 보면 1990년대 이전 책들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이들을 선정한 프로그램 수를 보면 '한 책' 독서운동에서 이들의 영향력 자체가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o Kill a Mockingbird*(1960년), *Fahrenheit 451*(1953년), *The Great Gatsby*(1925년)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이 1990년대 이전에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몇몇 책들은 미국문학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며 'The Big Read'에서도 권장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더 많이 읽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2.2 프로그램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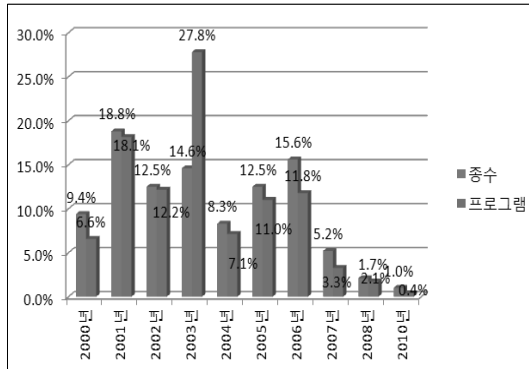
앞 절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0종의 책은 모두 1,247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행된 87종의 책이 모두 484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38.8%), 1991년부터 2000년 사이 발행된 67종은 모두 390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31.3%). 따라서 1,247개 프로그램의 70.1%가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최근 이십년 내 발행된 책들을 읽은 것이다.

다른 연대 구간의 책들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비율이 발행연도별 종수 비율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2>에 보는 것처럼 1951년부터 1960년대 발행된 책들은 9종으로 종수 비율은 4.3%에 지나지 않지만, 프로그램 비율은 157개로 12.6%에 이르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To Kill a Mockingbird*(1960년)와 세번째로 많은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Fahrenheit 451*(1953년)의 영향력 때문이다.

이 기간 중 발행된 다른 책으로는 Bernard Malamud의 *Natural*(1952년, 2개 프로그램 선정), E.B. White의 *Charlotte's Web*(1952년, 4개), 극작가 Arthur Miller의 *Crucible*(1953년, 4개), Anne Frank의 *Diary of Anne Frank(The Diary of a Young Girl)*(1956년, 5개), Alfred Lansing의 *Endurance: Shackleton's Incredible Voyage*(1959년, 5개), Lorraine Hansberry의 *Raisin in the Sun*(1959년), 'One Book, One Chicago'에서 2003년 봄 프로그램에 선정된 Elie Wiesel의 *Night*(1960년, 5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4> 2000년대 발행 책의 분포 (N=96)

발행연도	종수	비율	프로그램	비율
2000년	9	9.4%	34	6.6%
2001년	18	18.8%	94	18.1%
2002년	12	12.5%	63	12.2%
2003년	14	14.6%	144	27.8%
2004년	8	8.3%	37	7.1%
2005년	12	12.5%	57	11.0%
2006년	15	15.6%	61	11.8%
2007년	5	5.2%	17	3.3%
2008년	2	2.1%	9	1.7%
2010년	1	1.0%	2	0.4%
합계	96종	100%	518	1000%



<그림 3> 2000년대 발행 종수와 프로그램

<표 4>와 <그림 3>은 2개 이상 지역의 ‘한 책’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책들 가운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발행된 책 96종의 연도별 분포를 보여준다. 발행연도만으로 볼 때는 2001년에 발행된 책들이 18종(18.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 가운데 *Nickel and Dimed*는 2006년 일리노이 주 피오리아, 인디애나 주 라파예트 등 20개 프로그램, *Peace Like a River*는 2003년 네바다 주 와쇼 카운티, 2004년 뉴욕 주 로체스터와 네브라스카 주 링컨 등 15개 프로그램, *Life of Pi*는 2004년 애리조나 주 전역 프로그램 등 10개 프로그램, *Seabiscuit: An American Legend*는 2004년 매사추세츠 주 킹스턴, 2005년 메릴랜드 주 캐롤 카운티 등 9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는 등 모두 94개 프로그램(18.1%)에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수를 고려하면 2003년에 발행된 책들의 비중이 크다. 2003년에 발행된 14종(14.6%)의 책을 선정한 프로그램의 총수는 144개(27.8%)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59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됨으로써 *To Kill a Mockingbird* 다음으로 많이 읽힌 *Kite Runner*가 포함되어 있고, 20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Mark Haddon의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19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Tracy Kidder의 *Mountains Beyond Mountains*, 2004년 뉴저지 주의 사우스 오렌지/메이플우드, 2005년 유타 주 파크시티 등 10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인도 출신 작가 Jhumpa Lahiri의 *Namesake* 등이 포함되어 있다. *Namesake*는 2007년 워싱턴 주 시애틀의 ‘Seattle Reads’에서도 선정되었다.

2000년에 발행된 책은 Pam Munez Ryan의 *Esperanza Rising* 등 9종(9.4%)으로 모두 34개 프로그램(6.6%)에서 선정되었다. 이들 가운데 2010년 발행 책으로는 유일하게 Jhumpa Lahiri의 *Interpreter of the Maladies*가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이 책은 2004년 워싱턴 DC의 주 전역 프로그램에서 읽을거리로 처음 선정되었고, 2006년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 가을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2.3 주제 분석

이 절에서는 미국의회도서관 분류기호를 바탕으로 210종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5>를 보면 210종의 책은 모두 13개 주제 분야에 분산되어 있다. 전체에서 절대다수인 147종(70.0%)이 P(언어 및 문학) 주제에 속하며, 그 다음으로 12종(5.7%)이 E(미국역사), 11종(5.2%)이 F(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및 라틴아메리카 역사) 주제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다른 주제의 책들은 D(일반 및 구세계 역사)에 속한 8종(3.8%)을 제외하고는 2% 안팎의 낮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을 뿐이다.

C(역사 보조 과학)는 4종(1.9%), G(지리, 인류학 및 레크리에이션)는 6종(2.9%), H(사회과학)는 6종(2.9%), L(교육)은 4종(1.9%), M(음악)은 1종(0.5%), Q(과학)는 2종(1.0%), R(의학)은 2종(1.0%), S(농업)는 5종(2.4%), T(기술)는 2종(1.0%) 뿐이다.

<표 5> 선호된 책들의 주제별 분표 (N=210)

분류기호	주제 분야	종수	비율	프로그램	비율
C	역사 보조 과학	4	1.9%	18	1.4%
D	일반 및 구세계 역사	8	3.8%	28	2.2%
E	미국역사	12	5.7%	28	2.2%
F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및 라틴아메리카 역사	11	5.2%	59	4.7%
G	지리, 인류학 및 오락	6	2.9%	19	1.5%
H	사회과학	6	2.9%	42	3.4%
L	교육	4	1.9%	41	3.3%
M	음악	1	0.5%	6	0.5%
P	언어 및 문학	147	70.0%	912	73.1%
Q	과학	2	1.0%	4	0.3%
R	의학	2	1.0%	21	1.7%
S	농업	5	2.4%	34	2.7%
T	기술	2	1.0%	35	2.8%
합계		210종	100.0%	1247	100.0%

P(언어 및 문학) 주제의 중요성은 이 책들을 읽은 '한 책' 프로그램의 수와 비율을 고려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서 분석 대상인 210종의 책들을 읽은 '한 책' 프로그램의 총수는 1,247개인데, 이 가운데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의 73.1%를 차지하는 912개 지역사회에서 P(언어 및 문학) 주제의 책을 읽었다. 앞서 책들의 주제만 살펴보았을 때 그 종수에 따른 비율이 70.0%이었던 것에 비하여, 이들을 선택한 프로그램의 총수 비율은 3.1% 증가한 것이다. 나머지 12개 주제 분야의 책들은 '한 책' 프로그램의 사분의 일 정도(335개 프로그램, 26.9%)에 분산되어 읽힌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제 분야의 중요성은 특정한 책을 읽은 ‘한 책’ 프로그램의 수를 고려할 때 그 비중이 다소 변동된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T(기술) 주제의 책들은 단 2종(1.0%)만 선정되었는데, 이 책들을 읽은 프로그램 총수는 35개로 그 비율은 2.8%로 늘어났다. 그 이유는 이 T(기술)로 분류된 Michael Perry의 *Population 485*는 단 4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지만, Homer Hickam의 *Rocket Boys(October Sky)*는 앨라배마 주 그로브힐(2004)과 스카츠보로(2004), 플로리다 주 센트럴 플로리다(2002), 인디애나 주 그린우드(2002) 등 모두 31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책은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당시 네번째로 많은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이다. 2012년 8월 현재 미국의회도서관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이 책을 읽은 프로그램이 모두 38개로 늘어났고, 그 가운데 인디애나 주 사우스벤드, 일로노이 주 블루밍턴-노멀 등 2011년에 새로 등록된 지역의 프로그램들도 있었다.¹²⁾

P(언어 및 문학)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선정 비중이 높은 F(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및 라틴아메리카 역사) 주제에는 18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Bill Bryson의 *Walk in the Woods*, 17개 프로그램에서 읽은 James McBride의 *Song Yet Sung* 등 11종의 책(5.2%)이 포함되어 있고, 모두 59개 프로그램(4.7%)에서 선정되었다.

가장 적은 수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주제는 Q(과학) 분야의 책들이다. 이 주제로는 Elizabeth Kolbert의 *Field Notes from a Catastrophe*와 Rachel Carson의 *Silent Spring*, 단 2종의 책만 들어있고, 이들은 네 개의 ‘한 책’ 프로그램(0.3%)에서 선정되었을 뿐이다. 전자는 캘리포니아 주 산타바바라(2007년), 미네소타 주 헤이스팅스(2008년), 후자는 매사추세츠 주 브리지워터(2008-9년), 미네소타 주 위노나(2006년)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R(의학)과 T(기술) 분야의 책들도 2종씩만 선정되었지만, 각각 21개(1.7%)와 35개(2.8%) 프로그램에서 선정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그램 대비 비중은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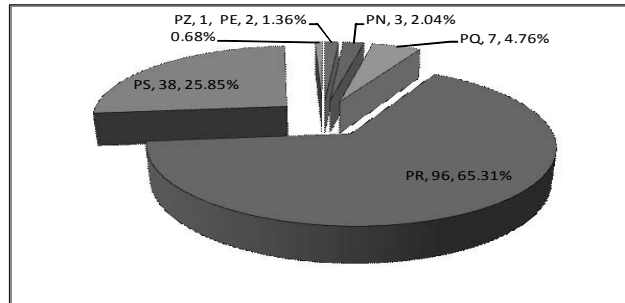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선정 비중이 적은 책은 M(음악) 분야의 책이었다. 여기 속한 유일한 책(0.5%)은 Steve Lopez의 *The Soloist*로서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2009), 캘리포니아 주 사우전드 오크스(2009) 등 여섯 개 프로그램 (0.5%)에서 선정되었다.

이러한 분류기호에 기반한 주제 분석은 ‘한 책’ 독서운동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간혹 분류기호로는 다른 주제를 나타냈다 하더라도 그 형식은 문학작품이다. 예를 들어 바로 위에 언급한 *The Soloist*는 분류기호로는 M(음악) 주제에 속하였지만, 음악을 다룬 책이 아니라 음악가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이다. 또한 *Rocket Boys*도 T(기술) 주제로 분류되었지만 과학기술을 다룬 책이 아니라 우주비행사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이다.

12) Library of Congress, “Local/Community Resources,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Selected List by Author.” <<http://www.read.gov/resources/authorlist.php/Letter=H>> [cited 2012. 8. 7].

<표 6> P 주제 책들의 하부주제 분포 (N=147)

주제	하부주제	종수	비율	프로그램	비율
PE	영어	1	0.7%	4	0.4%
PN	문학(일반)	2	1.4%	10	1.1%
PQ	프랑스 문학 - 이탈리아 문학 - 스페인 문학 - 포르투갈 문학	3	2.0%	10	1.1%
PR	영국문학	7	4.8%	37	4.1%
PS	미국문학	96	65.3%	672	73.7%
PZ	소설 및 청소년 순수문학	38	25.9%	179	19.6%
합계		147	100%	912	100.0%



<그림 4> P 주제 책들의 분포 (N=147)

한편 P(언어 및 문학) 주제의 책 147종의 하부주제를 살펴보면 <표 6>과 <그림 4>에 보는 바와 같다. 이들 가운데 PS(미국문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96종, 65.3%), 그 다음으로 PZ(소설 및 청소년 순수문학)로 나타났다(38종, 25.9%). PR(영국문학)으로 분류된 책이 7종(4.8%), PE(영어)가 1종(0.7%), PN(문학(일반))이 2종(1.4%), PQ(프랑스 문학 - 이탈리아 문학 - 스페인 문학 - 포르투갈 문학)이 3종(2.0%)이었다.

P(언어 및 문학) 주제의 책들은 모두 912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PS(미국문학) 주제로 분류된 96종의 책들이 가장 많은 672개 프로그램(73.7%)에서 선정되었고, PZ(소설 및 청소년 순수문학)로 분류된 책들은 179개 프로그램(19.6%)에서 선정되었다. PR(영국문학)으로 분류된 책은 37개 프로그램(4.1%), PN과 PQ로 분류된 책들은 각각 10개 프로그램(1.1%)에서 선정되었다.

이러한 주제의 분포 상황은 '한 책' 독서운동에서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문학 작품 가운데 미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읽었음을 확인한다.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에서 2005년 가을 *Pride and Prejudice*와 같이 같은 영어권의 영국 출신 작가들의 작품도 읽었고, 2006년 볼러시아 작가 Solzhenitsyn의 *One Day in the Life of Ivan Denisovitch*와 같은 작품을 읽기도 하였으나, 다른 나라 문학 작품을 선정한 비율은 미미하였다.

시애틀은 처음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이해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른바 앵글로색슨계 백인이 아닌 한국, 일본, 나이지리아, 칠레 등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애틀에서 선정된 책들 또한 영어로 쓰인 미국 작가들의 작품이며 외국어로 쓰이고 번역된 다른 나라 작가의 작품을 읽거나 하지는 않았다.

2.4 장르 분석

〈표 7〉 장르별 분표 (N=89)

장르	종수	비율	프로그램	비율	대표 책	
Adventure fiction	모험소설	1	1.1%	8	1.6%	<i>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i>
Baseball stories	야구소설	1	1.1%	2	0.4%	<i>Natural</i>
Bildungsromane	교양소설	8	9.0%	97	19.1%	<i>Bless Me, Ultima</i>
Biographical fiction	전기소설	4	4.5%	10	2.0%	<i>Girl With a Pearl Earring</i>
Detective and mystery stories	탐정/미스터리 스토리	3	3.4%	8	1.6%	<i>Ballad of Frankie Silver</i>
Domestic drama	가정드라마	1	1.1%	2	0.4%	<i>Our Town</i>
Domestic fiction	가정소설	19	21.3%	95	18.7%	<i>Plainsong</i>
Fantastic fiction	환상소설	1	1.1%	2	0.4%	<i>Shoeless Joe</i>
Historical drama	역사 드라마	1	1.1%	4	0.8%	<i>Crucible</i>
Historical fiction	역사소설	15	16.9%	62	12.2%	<i>Color of Water</i>
Humorous fiction	유머 소설	1	1.1%	2	0.4%	<i>Bean Trees</i>
Humorous stories	유머 스토리	1	1.1%	2	0.4%	<i>Big Stone Gap</i>
Legal stories	법정스토리	1	1.1%	6	1.2%	<i>Snow Falling on Cedars</i>
Love stories	러브스토리	1	1.1%	9	1.8%	<i>Animal Dreams</i>
Musical fiction	음악소설	1	1.1%	5	1.0%	<i>Soloist</i>
Mystery fiction	미스터리 소설	1	1.1%	5	1.0%	<i>No. 1 Ladies' Detective Agency</i>
Parables	우화	1	1.1%	5	1.0%	<i>Of Mice and Men</i>
Pastoral fiction	전원소설	1	1.1%	2	0.4%	<i>Meadow</i>
Political fiction	정치소설	2	2.2%	54	10.6%	<i>All the King's Men</i>
Psychological fiction	심리소설	15	16.9%	74	14.5%	<i>Bel Canto</i>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소설	4	4.5%	30	5.9%	<i>Frankenstein</i>
Sea stories	해양소설	1	1.1%	4	0.8%	<i>Treasure Island</i>
Spy stories	스파이스토리	1	1.1%	2	0.4%	<i>Native Speaker</i>
War stories	전쟁소설	2	2.2%	9	1.8%	<i>Killer Angels</i>
Western stories	서부소설	2	2.2%	10	2.0%	<i>My Antonia</i>
합계		89종	100%	509	100%	

210종의 책들 가운데 미국의회도서관 서지레코드에서 장르 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은 모두 89종이다. 이들은 〈표 7〉에 보는 바와 같이 모험소설(Adventure fiction) 등 모두 25개 장르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들을 읽은 '한 책' 프로그램의 총수는 509개에 이른다. 이 책들 가운데 정치소설과

공상과학소설이라는 두 개의 장르 표목을 가진 책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한 개의 장르 표목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각 책의 첫번째 장르 표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책들은 장르 면에서는 가정소설이 19종(2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모두 95개(18.7%)의 '한 책' 프로그램이 이러한 장르의 책들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역사소설과 심리소설이 각각 15종(16.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선정 프로그램 수는 심리소설(74개, 14.5%)이 역사소설(62개, 12.2%)보다 약간 많다.

주로 주인공의 성장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 성장소설로 불리기도 하는 교양소설은 모두 8종(9.0%)으로 97개 프로그램(19.1%)에서 선정되어 프로그램 면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았다. 모두 59개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Kite Runner*가 교양소설로 분류되었으므로 그 비중이 가장 컸으나, Sandra Cisneros의 *House on Mango Street*, Sue Monk Kidd의 *Secret Life of Bees*가 각각 10개와 9개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되는 등 여러 책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읽혔다.

모험소설을 포함한 15개 장르에는 단 한 권의 책들만 속하였다. 모험소설에는 Mark Twain의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이 속하였고, 야구 스토리는 Bernard Malamud의 *Natural*, 환상소설에는 W. P. Kinsella의 *Shoeless Joe*, 유머 소설에는 Barbara Kingsolver의 *Bean Trees*, 유머스토리에는 Adriana Trigiani의 *Big Stone Gap*, 법정 스토리에는 David Guterson의 *Snow Falling on Cedars*, 연애소설에는 Kingsolver의 *Animal Dreams*, 음악소설에는 Mark Salzman의 *The Soloist*, 미스터리 소설에는 Alexander McCall Smith의 *No. 1 Ladies' Detective Agency*, 우화에는 John Steinbeck의 *Of Mice and Men*, 전원소설에는 James Galvin의 *Meadow*, 해양 스토리에는 *Treasure Island*, 스파이 스토리에는 Chang-Rae Lee의 *Native Speaker*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Animal Dreams*가 9개 프로그램 (1.8%),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이 8개 프로그램(1.6%)에서 각각 선정되었고, 다른 책들은 대개 2개에서 5개의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되었다.

드라마 장르에 속한 책은 단 두 가지로 가정 드라마 장르에 속한 Thornton Wilder의 *Our Town*이 2개 프로그램(0.4%)에서, 역사 드라마 장르에 속한 Arthur Miller의 *The Crucible*이 'One Book, One Chicago'를 포함한 4개 프로그램(0.8%)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여기에서 89종의 책들이 25개 장르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2005년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¹³⁾ 2005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90종의 책 가운데 52종만이 장르 표목을 갖고 있었고, 이들은 전기, 가정소설, 역사소설, 심리소설, 교양소설, 청소년소설 등의 6개 장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25개에 이르는 상세한 장르로 구분된 것은 미국의회도서관 목록의 서지레코드에 2007년 10월 이후 MARC 서지 포맷의 655 필드(Index Term-Genre/Form)¹⁴⁾가

13) 윤정옥, 전제논문, p.38.

14) Library of Congress, "MARC 21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655 - Index Term-Genre/Form (R)," <<http://www.loc.gov/marc/bibliographic/bd655.html>> [cited 2012. 11. 6].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에도 전체적으로 가정소설, 역사소설, 심리소설 및 교양소설이 비중이 높은 장르로 나타난 것은 2005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2005년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전기라는 장르 표목이 나타나지 않았다. 655 필드에서 텍스트 자료의 장르 용어로서 '전기(biographies)'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연구를 위한 서지레코드 분석 시 Dave Eggers의 *What is the What*, Sonny Brewer의 *Poet of Tolstoy Park*, James Alexander Thom의 *Follow the River*, 그리고 Tracy Chevalier의 *Girl With a Pearl Earring*이 전기소설이라는 장르 표목을 가졌을 뿐, 전기라는 장르에 속한 책은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2010년 선정 책들 가운데 전기적 성격을 가진 책들의 비중은 적지 않다. 다음 절에서 살펴 볼 것처럼 그것은 장르 표목보다는 미국의회도서관 주제표목(LCSH)에서 Biography를 포함하는 책들이 적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다.

2.5 선정된 책의 주제표목 분석

210종의 책들 가운데 미국의회도서관 주제표목을 하나라도 가진 책은 모두 203종이었고, 이들을 선정한 '한 책' 프로그램의 수는 1,223개였다. 미국의회도서관 목록에 수록된 이들의 서지레코드에는 각각 많게는 대여섯 개까지 주제표목이 부여된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 한 개 혹은 두세 개 정도 주제표목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각 책에 부여된 복수의 주제표목들 가운데 가장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첫번째 표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주제표목들은 거의 겹치지 않았고, 매우 근접한 Racially mixed children과 Racially mixed people, Teenage girls와 Teenage mothers, People with disabilities와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라는 세 개의 주제표목들을 각각 한 개씩으로 간주한 결과, 모두 177개의 고유한 주제표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77개의 주제표목들 가운데 복수의 책에 나타난 표목의 수는 많지 않았다. African American women, African Americans, Mexican Americans, World War, 1939-1945의 4개 표목이 3종의 책에 첫번째 주제표목으로 주어졌고, African American men, Boys, City and town life, Fantasy, Fathers and daughters, Girls, Grandmothers, Japanese Americans, Juvenile delinquency(delinquent), Mountain lif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Racially mixed children(people), Sisters, Teenage girls(mothers), Traffic accidents(victims) 및 Women의 16개 표목이 2종의 책에 첫번째 주제표목으로 주어졌다.

셋째, 주제표목들을 유사한 성격에 따라 모으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African American...'으로 시작되는 표목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표목들은 African American boys, African American families, African American men, African American women, African Americans의

다섯 개로서 *Buffalo Soldier*, *Raisin in the Sun*, *Stranger in the Kingdom*,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Lesson Before Dying* 등 모두 10종의 책에 부여되었고, 모두 67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주제의 책들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것은 'Mexican American...'으로 시작하는 표목들로 Mexican American children, Mexican American families, Mexican Americans, Mexicans의 다섯 개를 포함하였다. 이 주제표목들을 가진 *Bless Me*, *Ultima*, *Caramelo*, *Esperanza Rising*, *House on Mango Street*, *Breaking Through*, *Tortilla Curtain* 등 6종의 책이 모두 45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넷째, 이 표목들을 그룹화하면 '...계 미국인(... Americans...)'이란 주제표목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이 연구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이전 연구¹⁵⁾에서 2005년 당시 '한 책'에 선정된 책 90종 가운데 미국의회도서관 주제표목을 가진 책이 81종이었고, 고유한 주제표목은 74개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 표목들 중에서 가장 많은 책에 나타난 주제표목이 '...계 미국인(... Americans...)', 즉 미국 내 다양한 인종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제표목의 비중이 어느 정도는 컸지만, 그 중요성은 이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 American) 및 멕시코계 미국인(Mexican American)과 더불어 이스트 인디언계 미국인(East Indian Americans), 그위친 인디언(Gwich'in Indians), 하이티계 미국인(Haitian Americans), 혼두라스계 미국인(Hondurans--United States), 이란계 미국인 여성(Iranian American women), 일본계 미국인(Japanese Americans),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s), 스포케인 인디언(Spokane Indians), 스웨덴계 미국인(Swedish Americans) 등 모두 11개의 주제표목이 이러한 '...계 미국인'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이 주제표목을 가진 책들은 157개의 '한 책, 한 도시' 프로그램(12.8%)에서 선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연구에서 이 주제표목들이 397개 프로그램이 선정한 81종의 책들 가운데 모두 89개 프로그램(22%)에서 읽힌 20종(25%)의 책에 부여되었던 것에 비하면 그 비율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2005년 당시까지 '한 책' 프로그램에서 읽은 책들보다 2010년 시점까지 읽은 책들의 주제적 다양성이 더 확대되었음을 암시한다고도 하겠다.

다섯째, 주제표목의 분포로만 보면 전체적으로 전기적 성격의 책들의 비중이 높다. 첫번째 주제표목에 직접 Biography가 포함된 것은 "Hondurans -- United States -- Biography"라는 표목이 부여된 Sonia Nazario의 *Enrique's Journey* 뿐이다. 그러나 첫째 주제표목만이 아니라 복수의 주제표목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는 210종 가운데 37종(17.6%)의 책이 Biography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제표목에 Biography를 포함하지 않았어도 인명을 첫번째 주제표목으로 선

15) 윤정옥, 전계논문, p.39.

정한 책이 모두 58종(27.6%)에 이른다. 이 가운데 “Angelou, Maya --Childhood and youth” 라는 표목이 부여된 Maya Angelou의 *I Know Why the Caged Bird Sings*, “Carter, Jimmy, 1924--Childhood and youth” 라는 표목이 부여된 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의 *An Hour Before Daylight*와 같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IV. 맺음말

‘한 책’ 독서운동에서 2010년 6월 현재까지 선정된 책 662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662종의 책 가운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은 217종이며(32.8%), 단 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은 445종이다(67.2%).

둘째, 662종의 책 가운데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작품은 하퍼 리의 *To Kill a Mockingbird*(78개)이고, 호세이니의 *Kite Runner*(59개)와 브래드베리의 *Fahrenheit 451*(52개)이 그 뒤를 이었다. 10개 이상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은 모두 32종으로 나타났다.

셋째,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 210종은 모두 1,247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으며, 이들을 발행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비교적 최근에 발행된 책들이 선호되었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발행된 87종(41.4%)의 책이 모두 484개 프로그램(38.8%)에서 선정되었고, 1991년부터 2000년 사이 발행된 67종(31.9%)의 책은 모두 390개 프로그램(31.3%)에서 선정되었다.

넷째, 책의 종수로만 보면 1990년대 이전 책들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으나, *To Kill a Mockingbird*(1960년), *Fahrenheit 451*(1953년), *The Great Gatsby*(1925년) 등 미국문학 고전의 반열에 올라선 책들은 많은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The Big Read’의 선정 책으로도 포함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210종을 미국의회도서관 분류기호로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13개 주제 분야에 분산되어 있으나, P(언어 및 문학)의 비중이 절대적이며(147종, 70.0%; 912개 프로그램), 이들 중 PS(미국문학) 책의 선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96종, 672개 프로그램, 73.7%).

여섯째, 장르 표목을 가진 89종의 책들은 모험소설 등 모두 25개 장르로 분산되어 있으며, 책의 종수로는 가정소설이 19종(21.3%), 그 다음은 역사소설과 심리소설이 각각 15종(16.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선정 프로그램 수로는 교양소설 비중이 가장 높았다(8종, 9.0%; 97개 프로그램, 19.1%).

일곱째, 미국의회도서관 주제표목(LCSH)을 가진 203종의 책들에 나타난 고유한 주제표목은 모두 177개로 매우 분산된 주제를 나타냈다. 이 주제표목들을 유사한 성격에 따라 모으면 'African American...' 및 'Mexican American...'으로 시작되는 표목들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도 '...계 미국인(... American)'을 포함한 표목들의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적 성격의 책들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 십여년 동안 '한 책' 독서운동에서 적어도 2개 이상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던 이들의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미국이라는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의 삶을 그린 전기적 성격의 교양소설이나 가정소설 형식의 비교적 최근 간행된 미국문학작품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맨처음 시애틀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작가들이 지은 작품의 독자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서”¹⁶⁾ 라고 천명한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목표에 따른 선정기준¹⁷⁾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매우 다양한 여러 특성을 가진 많은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한 책' 독서운동을 추진하였음에도 이들이 읽은 책들의 성격이 한 방향으로 수렴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결국 독자와 토론을 통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화합이라는 생각이 '한 책' 독서운동의 일관적인 지향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한 책'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책들의 전체적이며 집합적인 특성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한 책' 독서운동을 진행하고, 어떤 방식과 기준을 적용하여 어떤 책을 선정하였는가를 분석해 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 책' 독서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한 책' 독서운동이 가진 장기적 목표, 지역사회가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책을 선정하면서 설정하는 단기적 목표, 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심층적,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이들 개별 지역사회 '한 책' 독서운동의 목표와 실제 책의 선정에 이르는 과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이 연구의 후속 과제로 삼고자 한다.

16)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Seattle Public Library, 2009. "2009 Seattle Reads. A Reading Group Toolbox for My Jim." <http://www.spl.org/pdfs/Rawles_Toolbox2009.pdf> [cited 2009. 9. 20].

1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3. "One book, One Community: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 <<http://www.ala.org/ala/orc/onebookguide.pdf>> [cited 2007. 1. 18].

참고문헌

- 윤정옥.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5. 9), pp.27-44.
-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p.5-32.
-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08. 3), pp.63-81.
- 윤정옥. “미국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The Big Read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6), pp.311-333.
- 이용재.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전략: ‘원북 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247-265.
- 이용재.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9), pp.5-23.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3. “One book, One Community: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 <<http://www.ala.org/ala/orc/onebookguide.pdf>> [cited 2007. 1. 18].
-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 [cited 2012. 8. 2].
-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Selected List by Author.”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authorlist.php>> [cited 2012. 8. 2].